

한지붕 세대 공감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 '홈세어링'

'홈세어링' 사업은 주거 공간을 통해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해드리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총 8명의 대학생이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숙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시세보다 낮게 주거 공간을,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차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르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됩니다.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홈세어링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대학생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330-8749)



Q 어떻게 생활하나요?

A 입주하는 대학생은 독립된 방을 제공받으며 화장실,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해요. 어르신은 대학생에게 문단속, 간단한 집안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작동법 안내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며 임차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월 20만원 ~ 25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답니다.

Q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지내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A 어르신과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입주 전에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대체로 일주일 이내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한답니다.